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目 研究 (7)

李 德 鳳*

18. 細 辛 俗云 洗心

(가) 洗心 세심→세신

(나) 細辛(鄉藥, 東醫, 濟衆, 醫南). 죽도리풀볼취(方藥). 세신(物譜).

(다) 細辛에 對하여, 宋의 蘇頌은

「華州眞細辛, 根細而味辛, 故名之曰細辛」이라 하였다.

現今 「죽도리풀」과 細辛(세신)의 이름이 並用된다.

「죽도리풀」은 그 꽃의 形色이 죽도리와 비슷하므로 주어진 이름일 것이다.

19. 藍 藤 本名 藍藤根

(나) 藍藤根 鄉名 加土草(가사새, 鄉藥). 가사새... 卽今 藍漆也(東醫). 藍藤 가사새(物名攷).

(다) 諸 本草書에 藍藤(가사새) 「生新羅國, 根如細辛」이라 하였으나, 아직 그 原植物을 考證하기 困難하다.

20. 藍 汁 俗云 靑黛汁. [藍 又云 靑黛, 靑乙召 只非].

(가) 靑黛汁 청대즙? 靑苔 청태. 靑乙召只非 풀소기비.

(나) 藍質 鄉名 靑黛質(청대비), 「藥性論」의 「藍汁 止心煩躁, 解融毒」을 引用하였고, 마로 靑黛條有(鄉藥). 藍質 속씨 條下에 藥汁, 靑黛, 藍澱, 靑布等 諸項의 記載有(東醫). 靑黛 條下에 藍質 屬씨 附記(方藥). 藍 청퇴(物名攷). 藍 條下에 靑黛 屬청태, 靑藍 屬을 列學(物名攷).

(다) 靑黛에 對하여 本草綱目에

「黛眉色也, 劉熙釋名云, 減去眉毛, 以此代之, 故謂之黛」라 하였다.

靑黛는 쪽잎으로 만든 물감인데, 「청대」란 이름이 近世까지 傳來는 하였으나, 人造染料의 發展으로 植物染料가 衰退하면서 最近에는 「쪽」이란 이름이 겨우 남아 있다.

21. 芎 藭 俗云 蛇休草, 又蛇避草

(가) 蛇休草 비암말풀, 蛇避草?

(나) 芎藭(鄉藥). 궁궁이(東醫, 物名攷). 川芎 궁궁(濟衆, 方藥). 川芎 궁궁이(醫南). 芎藭 궁궁이(才物譜). 궁궁이님(物譜). 菲蕪 芎藭苗(鄉藥, 東醫). 菲蕪 궁궁이님(物名攷)

(다) 蛇休草, 蛇避草는 「궁궁이」의 強烈한 香氣때문에 ��암이 避한다는데서 由來되었을 것이요, 「궁궁이」(現名)는 芎藭의 字音에서 온 것이다.

22. 蒺藜子 俗云 古冬非居參

(가) 古冬非居參 고동비거삼

不冬 안동(梁柱東 古歌研究 p.614)

(나) 蒺藜子 朱書로 古冬非居(月令). 아마도 後人의 加筆인 듯하며, 小倉進平博士는 『古冬』 又は 「古冬」은 「羅」의 俗字 「罽」를 二分하여 誤書한 것이 아닌지. 즉 本來 「羅非」(字音 락비) 2字로서 「남」의 音을 表한 것으로 생각된다.』⁴⁾고 하였는데, 너무 지나친 見解가 아닌가 생각된다.

蒺藜子(鄉藥). 남가식(經驗方). 白蒺藜 남가식(東醫). 蒺藜 남가식(濟衆). 蒺藜 남가식(方藥). 白蒺藜(醫南, 才物譜). 蒺藜 식마름(物譜). 刺蒺藜 남가식... 白蒺藜 附記(物名攷). 茨 남가식(詩解).

(다) 「남가식」은 원숭이의 가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獼 남미, 猴 남후(訓蒙), 즉 남은 원숭이, 잔나비와 同義語이요, 또 荆 가시형, 棘 가시극(訓蒙), 즉 가시→가시→가지이다.

23. 黃 耆 俗云 數板麻, 又 目白甘板麻

(가) 數板麻 두너삼 目白甘板麻 흰주수단너삼→흰자 단너삼.

(數는 或은 段의 誤記가 아닌지? 筆者註)

(나) 黃芪 鄉名 甘板麻(단너삼, 月令, 鄉藥). 단너삼불취(東醫). 단너삼불취(濟衆, 方藥). 甘삼원희(醫南). 등츨(物譜). 草黃芪 단너삼, 黃耆(物名攷). 木黃芪 등츨(物名攷).

(다) 黃耆에 對하여, 李時珍은

「耆長也, 黃耆色黃, 爲補藥之長, 故名」

이라 하였다.

(4) 小倉進平: 「本草綱目啓蒙」에 引用된 朝鮮動植物名 古丘學叢 第10號 p.128, 昭和 7年(1932)

*理博; 中央大學校 理工大學

「단녀삼」은 단(甘)녀삼의 뜻이요, 녀삼은 苦參의 鄉名인데, 苦參은全體가 쓰지만 黃耆는 잎과 뿌리와 꽃의 形態가 苦參과 비슷하면서도 그 藥性은 「甘微溫無毒」하기 때문에 「단녀삼」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現今 純國名인 「단녀삼」과 漢名인 黃耆(황기)가 並稱되고 있다.

24. 蒲黃 俗云 助背槌

(가) 助背椎 조배방마치

椎 방마치추(訓蒙)

(나) 蒲黃 鄉名 蒲槌花上 黃粉, 香蒲 鄉名 次乙皆(할개)...蒲黃, 卽此 香蒲花, 是也(鄉藥) 蒲黃 부들꽃 마루(東醫, 濟衆). 香蒲 卽 蒲黃苗也(東醫). 부들꽃(方藥, 醫南). 부들(才物譜, 飭譜). 香蒲 부들, 蒲槌 부들방망이(物名攷). 蒲 부들, 葦(物名考).

(다) 「방마치」가 「방망이」로 訛變된 것은 틀림 없으나, 「조배」와 「부들」의 關係는 알길이 없다.

主로 圓柱形의 肉穗花序를 「부들방망이」라 하고, 植物全體를 「부들」이라고 부른다. 上記(나)項에 依하면 香蒲가 原名이나, 現時는 蒲黃이 原名처럼 되었고, 通稱은 「부들」이다.

「부들」의 名稱은 그 잎과 줄기를 달려서 만든 부채나 기적이 부드러워서 그 觸感이 부들부들 한데서 由來되었을 것이요, 「방망이」는 그 雌花穗가 짧은 圓柱形이요, 兩端亦是 둥글어서 방망이 같으므로 얻어진 이름일 것이다.

25. 決明子 俗云 狄小豆[草決明 決明有石有草, 故云草決明.]

(가) 狄小豆 되돏.

狄 되적

(나) 決明子(鄉藥). 초결명(東醫, 濟衆, 方藥). 草決明(醫南). 決明 초결명(物名攷).

決明에 對하여, 李時珍은

「以明目之功而名」

이라하였다.

「되돏」은 북녘 오랑캐 땅에서 온 말이란 뜻일 것이다. 그러나 純國名인 「되돏」은 어느 사이에 消失되고, 漢名인 決明(결명) 또는 草決明(초결명)으로 불려지고 있다.

26. 蛇床子 俗云 蛇音置良只萊實

(가) 蛇音置良只萊實 비얌두랏나골베 「置」의 訓「두」(古歌研究 p. 446), 良 라(史讀集成 p. 70).

(나) 蛇床子 鄉名 蛇都羅叱(뱀도랏, 鄉藥). 비얌도랏베(東醫, 濟衆, 方藥). 蛇床 비얌도랏씨(醫南). 蛇床子 배얌도랏(才物譜). 蛇牀 비얌도랏(物名攷).

(다) 蛇牀에 對하여, 李時珍은

「蛇虺喜於下, 食其子, 故有蛇牀蛇粟諸名」

이라 하였다.

비얌도랏→뱀도랏. 現時 「뱀도랏」과 蛇床子(사상자)가 並用된다.

「뱀도랏」은 「뱀」의 「도라지」라는 뜻인데, 뱀은 蛇床에서 온 것이겠고, 「도랏」은 「도라지」의 古稱이다.

27. 地膚苗 俗云 唐柎.

柎 싸리축

(가) 唐柎 댕싸리.

唐이 어째서 「대(大)의」→「댕」으로 읽게 되었을까? 바꾸어 말하면, 「대」에 對하여 어째서 「唐」字를 썼는가에 關하여 鮎貝氏는 「「댕싸리」, 「댕무우」等의 「대」는 「大」의 字音으로서, 支那 傳來의 것에 「唐」을 부치는 것과 同義』(5)라고 하였다. 首肯되는바 없지 않으나 或은 唐音 「당」이 「댕」, 「덴」으로 訛變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 地膚子 鄉名 唐柎(대바리, 鄉藥). 데리바어름(東醫). 데베리바(濟衆, 方藥). 담소리씨(醫南). 댕바리(才物攷). 댕술이(物譜). 地膚 댕싸리(物名攷). 담리(物名考).

(다) 대바리 }
 ↗ 댕술이 }
 ↘ 댕바리 } → 댕싸리(現名). 어떤 地方에

서는 「공쟁이」라고 부른다.

唐柎(댕싸리)의 唐은 中國의 原産 또는 中國으로 부터의 渡來임을 表示하는 것이요, 싸리는 그 形態와 用途가 싸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붙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28. 戒火 一名 景天, 俗云 塔菜

(가) 塔菜 탑취

(나) 景天 一名 戒火, 一名 愼火(鄉藥). 景天 집우더기(東醫, 物名攷). 昨藥荷草 집우더기 一名 瓦松(東醫). 景天(醫南, 才物譜).

(다) 塔菜란 이름은 鱗次로 層生한 葉叢 위에 花穗가 나온 瓦松(現稱 바위솔)이 마치 下廣上狹한 塔을 聯想케 되며, 또 멀리서 보던 소나무를 聯想(6)케도 되는데서 塔菜나 瓦松이니 하는 名稱이 생긴 것으로 짐

(5) 鮎貝房之進: 「朝鮮에 있어서의 茶에 對하여 「朝鮮」 <昭和 7年(1932) 6月號 p. 10>

(6) 昨藥荷草 生年久瓦屋上, 如蓬初生, 高尺餘, 遠望如松葉. 柳僞 物名類攷 無情類.

작되고, 또 昨葉荷草란 이름은 春夏節 아직 花穂가 나오기 前에 簇生한 葉叢의 모양이 日本서 「岩蓮華」나 「瓜蓮華」나 할만큼 蓮花를 聯想케 하는데서 由來된 것으로 생각한다.

以上 名稱들은 어느 것이나 昨葉荷草(瓦松類 Orostachys)에서 由來된 妥當性있는 이름이라 하겠다. 그러나 形態가 瓦松類와 相異한 景天屬(Sedum)에는 適當하지 않다. 그런데 本草書에 景天에 對하여 「一名 慎火, 生川谷」이라 하였고, 又是 「今人以盆盛植屋上, 以辟火, 故謂之慎花草」라 하였으며, 本草綱目的 그림을 보아도 盆에 심은 形態가 景天屬(Sedum)이 分明하다. 이렇게 元來 岩上이나 屋上에 自生하는 瓦松類(Orostachys)와는 그 生育處가 다르고, 形態도 매우 다른 景天屬에다 어째서 塔菜란 俗名을 붙이게 되었을가 하는 疑問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景天科(Grassulaceae)에 屬하는 植物은 어느 것이나 水分을 多量으로 含有한 多肉葉을 가지고 있는 極度の 乾生植物로서, 瓦松類가 예로 古瓦屋을 덮다싶이 群生하면 實際로 防火의 効果가 어느 程度있었을 것이요, 따라서 「以盆盛植屋上」하는 辟火의 信心을 붙이게 되고, 戒火 又は 慎火의 別名도 생기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植物의 種 鑑別이나 形態의 比較에 詳細치 못한 當時의 本草家가 다만 多肉葉을 가진 그 性質의 相同 때문에 瓦松과 景天을 混同하여 景天에다 塔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가 한다. 그리고 담초→담나물→돌나물→돌나물로 變遷된 것으로 본다. 現稱 돌나물 又は 돌나물은 岩上에 生育하는 亦是 Sedum屬의 1種으로 덩굴이 없고 形態가 景天(俗云 塔菜)과는 다르지만, 또한 多肉葉을 가진 性質의 相同에 起因한 混同에서 이러한 名稱의 自然的 變遷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에 「집우디기」는 「집위지키기」 또는 「집웅지키기」와 同義語로 생각된다. 그래서 集우지키(7)→기집웅지키(現稱)로 變換된 것이 아닐가 한다. 그리고 亦是 性質의 相同 때문에 瓦松과 景天의 兩種이 모두 「집우디기」라는 同一 鄉名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9. 菌蕒蒿 俗云 加火老只

- (가) 加火老只 더부르기→더부르기
- (나) 菌蕒蒿 鄉名 加火老只(月令)

「加火老只」에 對하여, 小倉博士는 『火』는 訓「불」인데, P-를 摩擦音 W-로 轉變하여 「위」又是 「우」로 借用한 것이요, 「老」는 「左」의 誤字인듯하다(8)고 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加火老只」는 「加火左只」가 되고, 「더위자기」又是 「더우지기」로 읽게 된다.

菌蕒蒿 鄉名 加外左只(더위자기, 鄉藥). 더위자기(東

醫). 菌蕒 더위지기(濟衆, 方醫). 菌蕒 더위지기(醫南). 더위자기(才物譜).

(다) 菌蕒蒿에 對하여, 唐의 陳藏器는

「此蒿類, 經冬不死, 更因舊苗而生, 故名因陳, 後加蒿字耳」라 하였다.

小倉博士의 見解에 依한다면, 「더부르기」는 成立되지 않으나, 或은 「더부르기」는 菌蕒蒿의 春生苗가 더부록 한데서 「더부록」이란 形容詞를 名詞化한 것이 아닐가 한다.

더부르기→더위자기→더위자기→더위지기(現名).

「더위지기」(9)는 本植物이 傷寒熱, 頭熱等을 다스리는 藥効가 있으므로 熱의 侵入을 지킨다는 뜻에서 온 것이 아닐가 한다.

30. 蒼耳 俗云 石古休伊 [又云 伏古尔伊]

(가) 石古休伊 돛고마리. 伏古尔伊 북고마리. 休 말휴 又は 鴉伊, 水鴨伊 무수리(東嶺集成 p. 20)

蒼耳 鄉名 升古休伊(돛고마리, 月令). 菜耳實(鄉藥) 蒼耳 돛고마리 ○蒼 蒼耳也(東醫). 蒼耳子 돛고마리○ 一名 蒼耳, 卷耳(方藥). 蒼耳 돛고마리(醫南). 蒼耳 돛고마리(才物譜, 物名考). 菜耳, 卷耳 돛고마리. 蒼耳子 돛고마리(物譜). 卷耳 돛고마리(詩解).

(나) 돛고마리 <돛고마리 / 북고마리> →도꼬마리(現名). 「돛고마리」는 돌(도야지)의 꼬마리(도랑에 나는 蔓科植物)란 뜻이 아닐지?

31. 葛根 俗云 叱乙根

- (가) 叱乙根 솔불취
- (나) 葛粉(鄉藥). 葛根 솔불취(東醫, 濟衆, 方藥). 乾葛(醫南). 葛 솔(才物譜). 葛藤 솔(物譜).
- (다) 葛, 솔이 現存까지 變치 않고 通稱된다.

32. 栝樓 俗云 天乙根 [又云 天原乙]

(가) 天乙根 하늘불취 天原乙 하늘불 原 乙 (古歌研究 pp. 4, 44, 386, 391)

(나) 栝樓根 鄉名 天叱月伊(하늘타리, 月令). 瓜蔓根 鄉名 天叱月伊(하늘타리, 鄉藥). 瓜蔓根 하늘타리 불취, ○一名 天花粉(東醫). 天花粉 하늘타리불취가 또 瓠仁 하늘타리씨(濟衆). 瓜蔓仁 하늘타리씨, ○天花粉 하늘타리불취(方藥). 天花粉 하늘타리씨(醫南). 栝樓 하늘타리(才物譜, 物譜). 하늘타리, ○瓜蔓, 天

- (7) 「집우지키기」의 「지키」는 문지기(門直者), 모지기(藪直者)의 「지키」와 語源이 同一할 것이다.
- (8) 小倉進平: 「本草綱目啓蒙」에 引用된 朝鮮動植物名, 西丘學叢第10號, p. 122 昭和 7年(1932)
- (9) 「지키」는 守直者라는 뜻이다. 28(다)項의 (註7) 參照.

瓜, 天花粉(物名攷). 天瓜 하늘타이, 瓜樓 同(物名攷)
瓜瓠 하늘타리, 天瓜(蒙諭).

(다) 하늘타리=하늘두래팔→하늘타리→다늘타리(現名)
瓠 하늘두래팔(訓蒙).
「하늘」은 天瓜, 又は 天花粉에서 由來된 것이겠고,
「다래」는 그 果實이 다래(獼猴桃) 비슷한데서 주어진
것으로서 「하늘의 다래」를 意味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늘타리」로 訛變하여 現속에 이른 것이 아닌가한다.

33. 苦參 俗云 板麻

(가) 板麻 너삼.

(나) 苦參(鄉藥). 쓴너삼불취(東醫). 쓴너삼갈취(濟
衆, 方藥). 쓴너삼살취(醫南). 쓴너삼, 바얌의 정주
(才物譜). 쓴너삼(物譜). 고박얌의경자(物名攷).

(다) 「너삼」은 現名 「도독놈의 지맹이」와 함께 아지
도 一部 地方에서 使用되고 있다. 「쓴너삼」은 예전에
「너삼」으로 불려오던 것이 달너삼(黃芪)과 區別하기
爲해서 (쓴苦)을 冠하였다가 近世에 「너삼」으로 還元
한 것 같다.

34. 當歸 俗云 巨貴草

(가) 巨貴草 단귀풀.

(나) 當歸 鄉名 僧庵草(승암초, 月令, 鄉藥). 승암
초불취(東醫, 濟衆). 승검초불취(方藥), 승암초살취
(醫南). 승검초(才物譜). 승암초, 辛甘菜 東俗語(物名
攷).

(다) 問或 「승암초」, 「신감채(辛甘菜)」의 이름이 使
用되나, 거의 당귀(當歸)로 通稱되고 있다.

35. 通草 俗云 伊屹鳥音 [又云 角乙吾音蔓]

(角은 有字의 誤記인듯, 筆者註)

(가) 伊屹鳥音 이홀음→이흐름. 角乙吾音蔓 뽕음너출

(나) 通草(鄉藥). 通草 어흐름너출, ○通草 即 木通
也, ○木通通草乃一物也(東醫). 木通 어흐름나모불취,
○通草 어흐름너출(濟衆, 方藥), 木通 어름너출(醫南)
通草 어흐름(物譜, 物名攷). 通草 어흐름명골, 木通
(才物譜).

(다) 李時珍은 「有細細孔, 兩頭皆通, 故名通草, 即
今所謂木通也」라 하여 通草名의 由來를 說明하였는데,
實際로 木通(으름명골)의 줄기의 皮部와 材部와의 사
이에는 가는 구멍이 둘러 있어서 烟氣를 뿜으면 그 구
멍을 통하여 排出된다.

이흐름→으흐름→ 명골(現名). 으흐름→으름은 或
은 여름(果)의 變形인지? 그 맛이 甘美롭기 때문이
果中果로 여겨서 여름→으름이 된 것인가?

36. 芍藥

(나) 芍藥 鄉名 大朴花(한박꽃, 月令, 鄉藥). 함박
꽃불취(東醫). 赤芍(濟衆). 白芍 함박꽃불취. ○赤芍
(方藥). 芍藥, 白芍藥(醫南). 芍藥 자약(才物譜, 物
譜). 함박꽃, 山芍藥, 白芍藥 광대자약, 赤芍藥 비너
자약(物名攷). 芍藥 사약(蒙諭).

(다) 李時珍은 「芍藥猶芍約也, 婢約美好貌, 此草花
容婢約, 故以爲名」이라 하였는데, 이것으로 芍藥의 由
來를 짐작 할 수 있다. (계 속)

大韓漢醫學會報定期購讀申請案內

今般 本學會에서는 非賣品으로 發刊하던 學會報를 有價誌로서 會員(漢醫師)아닌 汎醫藥
界 및 一般大衆에게 購讀의 機會를 드리키 爲하여 5月號(前月號)부터 發行實費 50원(送料
包含)으로 定하고 下記와 같이 定期(1996年 10月~1967年 9月(12個月)) 購讀申請을 接受하
고 있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記

- ◇ 接受處: 本學會 事務處
- ◇ 接受期間: 9月 10日부터~10月 10日까지
- ◇ 申請方法: 振替口座 서울605番으로 讀者의 住所, 姓名을 明確히 적어서 送金하거나 直接 本學會
事務處로 申請하여도 可함.
- ◇ 購讀料: 一年間(12個月分) 600원(送料包含) 六個月間 300(送料包含)
- ※ 限定部數 이므로 先着順으로 磨勘하며 超過分은 返送해 드립니다.

大韓漢醫學會

振替口座 서울 605番 서울·鍾路區樂園洞 235~5 TEL ☎ 4823 ☎ 0913